기출만 외운 내가 왕들의 책사가 되었다

1화 ~ 80화 전권

목차

1. 1화. 79점짜리 인생, 구석기에 떨어지다
2. 2화. 너는 누구의 것이냐
3. 3화. 주인이 바뀌는 날
4. 4화. 소금 길, 쇠 길
5. 5화. 한강의 첫 주인은 글씨 쓰는 사람을 찾는다
6. 6화. 왕이 죽은 나라의 곡식 장부
7. 7화. 아버지를 돌에 새긴 아들
8. 8화. 꼴찌 나라에 줄을 서다
9. 9화.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날
10. 10화. 642년, 세 나라가 한꺼번에 뒤집힌 해
11. 11화. 바다를 건넌 사신, 황산벌의 오천
12. 12화. 동해의 용이 되겠다
13. 13화. 피리 소리와 마을 장부
14. 14화. 바다 동쪽의 큰 나라
15. 15화. 푸른 바다를 건넌 사람
16. 16화. 끝에 웃는 사람
17. 17화. 장인어른이 스물아홉
18. 18화. 책만 읽던 임금의 칼
19. 19화. 칼 없이 얻은 여섯 고을
20. 20화. 개경이 불탄 겨울
21. 21화. 왕자 스님과 돈, 그리고 말 탄 적
22. 22화. 고인 물
23. 23화. 관을 벗어 던지다
24. 24화. 씨가 따로 있나
25. 25화. 섬으로 간 조정, 뭍에 남은 사람들
26. 26화. 사위의 나라
27. 27화. 되돌리는 임금
28. 28화. 다리를 건너는 사람
29. 29화. 궁궐 이름은 내가 짓겠네
30. 30화. 아버지와 다른 길
31. 31화. 스물여덟 자
32. 32화. 계유년의 철퇴
33. 33화. 이룰 성(成)
34. 34화. 사초 한 장
35. 35화. 두 사신
36. 36화. 길은 빌려줄 수 없다
37. 37화. 열세 척, 그리고 폐허 위의 임금
38. 38화. 세 번 달아난 임금
39. 39화. 북쪽을 치자던 임금, 상복을 다투는 신하들
40. 40화. 판을 세 번 엎은 임금, 돈이 도는 길
41. 41화. 탕평, 그리고 뒤주
42. 42화. 서얼들의 방
43. 43화. 화성으로 가는 길
44. 44화. 달이 지고 난 뒤
45. 45화. 흰 수건을 두른 사람들
46. 46화. 문을 닫아건 사내
47. 47화. 도끼를 멘 선비
48. 48화. 모래 섞인 쌀
49. 49화. 사흘의 꿈
50. 50화. 숨어 지낸 십 년
51. 51화. 녹두꽃
52. 52화. 갑오년의 법, 을미년의 칼

53. 53화. 종로에 선 백정
54. 54화. 황제의 전차
55. 55화.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56. 56화. 담배를 끊은 나라
57. 57화. 가세, 서간도로
58. 58화. 압록강을 건넌 사람들
59. 59화. 칼 찬 선생, 매 맞는 농부
60. 60화. 기미년 삼월, 대한민국 사월
61. 61화. 만주의 총성, 상하이의 선언
62. 62화. 조선 사람 조선 것
63. 63화. 저울과 어린이
64. 64화. 두 번째 만세, 하나 된 깃발
65. 65화. 시계를 바꿔 찬 아침
66. 66화. 말을 모으는 사람들
67. 67화.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
68. 68화. 며칠만 더 있었더라면
69. 69화. 해방은 왔는데, 선도 같이 왔다
70. 70화. 반쪽의 첫 투표
71. 71화. 다리는 끊기고
72. 72화. 0.33명이 사라진 날
73. 73화. 강을 건넌 군인, 강가의 기적
74. 74화. 겨울 공화국
75. 75화. 광주에서 온 종이 한 장
76. 76화. 딱 한 해 남았다
77. 77화. 소가 넘은 선, 마지막 호외
78. 78화. 배낭 하나, 지나온 땅
79. 79화. 이름 없는 이들의 탑
80. 80화. (가)와 (나) 사이

1화. 79점짜리 인생, 구석기에 떨어지다

79점. 1급 합격선은 80점이다.

"……하."

웃음도 안 나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다섯 번 봤고, 다섯 번 다 2급이었다. 이번엔 딱 한 문제 차이였다.

내 이름은 강한결. 스물일곱, 공기업 준비 3년 차. 가산점을 받으려면 1급이 필요한데 서랍엔 2급 성적표만 다섯 장이다.

억울한 건 따로 있다. 나는 기출을 통째로 외웠다. '율령 반포' 하면 법흥왕, '훈민정음' 하면 세종. 낱말 짝짓기라면 자다가도 한다. 그런데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진다. 낱말은 아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 그다음에 뭐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구슬은 서 말인데 꿸 실이 없는 거다.

"다음 시험까지 한 달……."

나는 기출 문제집 위에 그대로 엎드렸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현대'였다.

＊　　＊　　＊

추웠다. 뼈가 시리게.

"으으…… 보일러……."

손을 뻗었는데 이불이 아니라 짐승 털이 잡혔다. 냄새도 났다. 눈을 뜨니 바위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굴 속이었다. 모닥불 둘레로 가죽 두른 사람 스무 명쯤이 웅크려 자고 있었다. 나도 가죽을 두르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꿈이네."

발가락이 얼어서 꿈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때 눈앞에 파란 창이 떴다.

[강한결 님, 환영합니다. 당신은 '기출만 외운 자'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약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끝까지 살아 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보상: 1급.]

1급. 그 두 글자에 잠이 확 깼다.

[주의. 그 시대에 아직 없는 것을 만들거나 가르치면 '역사 오염'입니다. 현재 0/3. 세 번 쌓이면 당신은 사라집니다.]

[하나 더. 역사는 가만두면 자꾸 어긋납니다. 기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도 당신 몫입니다.]

"그럼 정답을 알려 주면 되잖아요."

[정답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오염입니다.]

"……어쩌라고요."

창은 대답 없이 꺼졌다. 대신 손이 솥뚜껑만 한 아저씨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일어나. 돌 깨러 간다."

말이 통하는 게 신기했는데, 창이 한 줄 더 떴다.

[말은 통하게 해 두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좋네. 나는 속으로 그를 '큰손'이라 부르기로 했다.

*　　*　　*

강가엔 주먹만 한 자갈이 널려 있었다. 큰손이 하나를 골라 다른 돌로 내리쳤다. 딱. 딱. 몇 번 만에 한 손에 쏙 드는 뾰족한 돌이 됐다.

"자."

받아 든 순간 알았다. '**주먹도끼**다.' 돌을 깨뜨려 떼어 내서 만든 도구라 **뗀석기**라 부른다. 큰손은 그걸로 짐승을 찍고, 가죽을 벗기고, 땅을 파서 뿌리를 캤다.
구석기의 만능 칼이었다.

꼬맹이 하나가 한쪽만 대충 깬 뭉툭한 돌을 주워 들었다.

"이걸로 고기 자를래!"

"그건 **찍개**다. 한쪽만 깨서 내리찍는 거야. 자르고 벗기는 건 이쪽."

큰손이 앞뒤를 다 깬 양날 돌을 쥐여 줬다. 꼬맹이는 두 돌을 다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욕심 많은 녀석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큰 강 옆."

이 강이 한탄강이고, 이 땅이 훗날 **연천 전곡리**라 불린다는 건 나만 알았다. 손에 든 돌을 뒤집어 봤다. 양쪽 면을 고루 다듬은 고급형,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프랑스 생타슐 마을에서 처음 찾아서 붙은 이름이다.

먼 훗날 학자들은 "동아시아엔 이런 게 없었다"고 말한다. **모비우스**의 학설이다. 그런데 한 미군 병사가 이 강가를 걷다 이 돌을 줍고, 그 학설이 뒤집힌다.

"아저씨, 이거 엄청난 겁니다."

"돌이다."

"……네. 돌이죠."

*　　*　　*

이틀째 밤, 불씨가 죽었다. 굴 안이 순식간에 식었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큰손이 말없이 마른 나무토막 위에 막대를 세우고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슥슥슥슥. 한참 만에 가느다란 연기가 올랐다. 마른풀을 대고 불자 불이 살아났다. 나무끼리 문질러 그 열로 불을 붙이는 **마찰식 점화법**이다.

"저도 해 볼게요."

손바닥 껍질만 벗겨졌다. 연기는커녕 냄새도 안 났다. 큰손이 혀를 찼다.

"그래서 불씨는 안 꺼뜨리는 거다."

그런데 불로도 안 되는 게 있었다. 바닥이 얼음장이었다. 사흘째 밤, 참다못해 입을 열었다.

"저기, 땅을 좀 파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으면 훨씬 따뜻할 텐데……."

삐—.

`[역사 오염 1/3. 땅을 파고 지붕을 덮는 '움집'은 신석기의 것입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큰손이 나를 빤히 봤다.

"땅을 왜 파? 내일 떠날 건데."

"떠나요?"

"이 근처 짐승은 다 잡았고 열매도 다 땄다. 먹을 게 없으면 옮겨야지."

아. 이 사람들은 짐승을 **사냥**하고 열매와 뿌리를 **채집**해서 먹는다.

기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찾아 먹으니, 근처가 바닥나면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이동 생활**이다. 내일 떠날 사람은 집을 짓지 않는다.

잠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잤다. 강가에선 나뭇가지에 가죽을 걸쳐 대충 엮었다.

"이게 집이에요?"

"막 지은 거지. 내일 버릴 거니까."

막 지어 막 버리는 집, **막집**이다. 기출에선 '구석기, 동굴, 막집'이 그냥 한 줄이었다. 그 한 줄에 이유가 있었다.

*　　*　　*

이튿날 아침, 무리가 짐을 쌀 때 창이 붉게 떴다.

```
[경고. 이대로 두면 역사가 어긋납니다.]
```

```
[연천 전곡리 강가에 그 돌이 남지 않습니다.]
```

꼬맹이가 돌 두 개를 양손에 쥐고 강물로 달려가고 있었다. 물수제비를 뜰 참이었다. 저게 물에 빠지면 병사가 못 줍고, 학설이 안 뒤집히고, 내 기출 한 문제가 사라진다.

"그거 두고 가!" 소리치려다 입을 닫았다. 왜냐고 물으면? 수십만 년 뒤 학설 때문이라고? 그게 정답 말하기다.

그런데 둘 중 뭘 남겨야 하지.

'모비우스가 동아시아엔 주먹도끼만 있다고 했던가…?'

손이 뭉툭한 돌 쪽으로 갔다. 그때 어제 큰손 목소리가 귀에 걸렸다. '그건 찍개다.' 흔한 돌. 흔한 걸 내밀어 봐야 학설은 안 뒤집힌다. 없다던 걸 내밀어야 뒤집힌다.

모비우스가 동아시아엔 찍개뿐이라 했으니, 남아야 하는 건 양날짜리다.

등에 땀이 흘렀다. 한 끗이었다.

나는 꼬맹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내기하자. 그 뭉툭한 걸로 몇 번 튀나 세 줄게. 대신 양날짜리는 저 바위 밑에 꽂아 둬."

"왜?"

"큰손 아저씨한테 물어봐.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갈 거냐고."

꼬맹이가 쪼르르 달려갔다. 큰손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무겁다. 버려라. 돌은 가는 데마다 있다."

양날 돌은 바위 밑에 꽂혔다. 찍개는 세 번 튀고 가라앉았다.

"세 번! 내가 이겼지?"

"……그래, 네가 이겼다."

상으로 나는 사흘 길 내내 꼬맹이를 목말 태웠다. 옮겨 다니는 사람은 짐이 적어야 한다던데, 내 짐은 사람이었다.

[역사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은 훗날 그 돌을 주울 병사에게 갑니다.]

[물수제비 내기로 학설을 지킨 구석기인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찍개는 한쪽만 깬 흔한 돌, 주먹도끼는 앞뒤를 다 깬 돌. 모비우스가 없다던 건 주먹도끼.'

여러 날을 걸어 닿은 남한강 가에선 큰손과 젊은 사내가 붙었다.

"큰 돌은 힘껏 내리쳐야 크게 떨어져!"

"그러다 반은 부서진다. 작은 돌로 톡톡 쳐야 날이 곱다."

젊은이가 나를 돌아봤다. "너는 어느 쪽이냐?" 큰손도 돌아봤다. 둘 다 돌을 쥐고 있었다.

"……둘 다 맞는 걸로 하죠."

둘이 동시에 혀를 찼다. 오염보다 무서운 게 있었다. 돌 쥔 어른 둘. 승부는 비겼다. 찍을 돌은 젊은이 방식이, 자를 돌은 큰손 방식이 나았다. 쓰임에 따라 깨는 법이 달랐던 거다. 훗날 여러 기법의 석기가 쏟아지는 **단양 수양개**가 이 강가다.

며칠 뒤 큰손이 혼자 사슴을 잡았다. 그런데 고기는 스무 명이 똑같이 나눴다.
아무것도 안 한 내 몫도 같았다.

"아저씨가 대장인데 더 드셔야죠."

"대장? 그게 뭐냐."

"……제일 높은 사람요."

"나는 그냥 길을 제일 잘 아는 거다. 내일 내가 다치면 네가 나를 먹여야지."

그날 잡은 건 그날 다 먹는다. 남는 게 없으니 쌓아 둘 것도, 빼앗을 것도 없다.
그래서 다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누구도 더 갖지 않는 **평등**한 삶이다.
시험지에선 딱딱하던 말이 이렇게 따뜻했다.

*　　*　　*

[첫 임무 달성. 시간을 건너뜁니다.]

"잠깐, 인사는 하고……!"

큰손이 돌을 깨다 말고 돌아봤다. 그 모습이 물에 번지듯 흐려졌다.

빨리 감기처럼 세월이 흘렀다. 그 속에서 내 손등만 그대로였다. 짐승은 작고 빨라졌다. 다가가면 달아났다. 그러자 누군가 돌 끝을 길쭉하게 다듬어 나무 자루에 꽂았다. 자루에 박히는 뾰족한 꼬리, 슴베를 단 돌, **슴베찌르개**다. 멀리서 던지니 달아나기 전에 맞힌다.

그리고 얼음이 녹았다. 세상이 따뜻해졌다. 그게 모든 걸 바꿨다.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입니다.]`

넓은 강가 모래밭에 둥근 지붕들이 모여 있었다. 땅을 무릎 깊이로 파고, 기둥을 세우고, 풀로 덮은 집.

"……**움집**이다."

이번엔 삐 소리가 없었다. 이제는 있어도 되는 물건이니까. 들어가 보니 한가운데 **화덕**이 있었다. 따뜻했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아 조금 울었다. 구석기의 얼음 바닥이 생각나서.

"새로 온 애냐? 울지 말고 이거나 갈아라."

할머니 한 분이 넓적한 돌판과 길쭉한 돌을 내밀었다. 도토리 껍질을 벗기고 가루 내는 **갈판**과 **갈돌**이다.

만져 보니 매끈했다. 깨뜨린 게 아니라 갈아서 만든 **간석기**. 돌을 떼면 구석기, 갈면 신석기다.

이 강이 한강이고, 이 마을이 훗날 **서울 암사동**이 된다는 건 나만 알았다.

"할머니, 여기도 곧 떠나요?"

"씨를 뿌렸는데 어딜 가. 거둘 때까지 지켜야지."

밭엔 **조**와 **피**가 자라고 있었다.

이 땅 **농사의 시작**이다.

움집 옆 울타리엔 짐승 몇 마리가 갇혀 있었다.

"저건 왜 안 잡아먹어요?"

"잡으러 다니면 놓치지. 가둬 놓고 기르면 안 놓친다."

짐승을 길러 먹는 **목축**이다.

큰손네는 있는 걸 찾아 먹었다. 이 마을은 **농경과 목축**으로 먹을 것을 직접 만든다.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려면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한곳에 눌러사는 **정착**, 그래서 움집이다.

따뜻해졌다, 농사를 짓는다, 머문다, 집을 짓는다. 실이 꿰어지는 느낌에 신이 나서 입이 미끄러졌다.

"할머니, 조 말고 벼를 심으면 밥이 훨씬 맛있는데……."

삐—.

```
[역사 오염 2/3.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의 것입니다.]
```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나 남았다.

*　　*　　*

거둔 곡식은 빗으로 그은 듯한 줄무늬 그릇에 담았다. **빗살무늬 토기**다. 그런데 밑이 뾰족했다.

"이거 어떻게 세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토기를 모래밭에 푹 꽂았다. 섰다. 강가 모래땅에 사니까. 남는 곡식이 생기니 담아 두고 끓여 먹을 그릇이 필요해진 거다.

가을, 바닷가에서 할머니 친정 식구들이 왔다. 오자마자 그릇 자랑이 붙었다.

"우리 마을은 조개 먹고 껍데기를 한데 버리우. 쌓여서 언덕이 됐지."

조개껍데기가 쌓인 그 언덕이 **조개더미**다. 남쪽 조카가 풀어 놓은 빗살무늬 그릇과 갈돌을 보니, 훗날 그 조개더미에서 이것들이 나온다는 **부산 동삼동**이었다.
할머니가 조카 그릇을 뒤집어 보고 혀를 찼다.

"무늬가 그게 뭐냐. 우리 친정은 흙 띠를 덧붙였다."

흙 띠를 붙인 **덧무늬 토기**. 다른 조카가 질세라 꾹꾹 찍은 그릇을 꺼냈다. **눌러찍은 무늬 토기**다. 신석기 그릇이 빗살무늬 하나만은 아니었다.

동해에서 온 소년은 돌 허리에 뼈 바늘을 따로 이어 붙인 **이음낚시**를 메고 있었다.

"나랑 내기하자. 누가 더 잡나."

소년 그물엔 돌로 만든 **그물추**가 달려 착 가라앉았다. 맨손인 나는 첨벙대다 졌다. 이번 내기는 진짜로 졌다. 소년이 으스댔다. 제 고향은 동쪽 바닷가라고. 훗날 이음낚시와 덧무늬 토기가 함께 나오는 **양양 오산리**다.

이튿날 아침, 뱃길에 지친 할머니 오라비가 숨을 거뒀다. 할머니는 울지 않고 조개 팔찌를 오라비 팔에 끼웠다.

"우리 집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보낸다."

섬에서 온 사촌이 끄덕였다. "**여수 안도**에서도 그런다." 훗날 그 섬 조개더미에서 조개 팔찌를 낀 사람 뼈가 나온다. 신석기 사람들도 죽은 이를 묻어 보냈다는 증거다. 기출의 한 줄이 오늘 팔뚝에 있었다.

저녁이면 둥근 돌을 막대에 꿰어 뱅글뱅글 돌렸다. 풀 줄기에서 실이 뽑혀 나왔다. **가락바퀴**다. 그 실을 **뼈바늘**에 꿰어 옷을 짓고 그물을 떴다. 가죽만 두르던 시절은 끝났다.

*　　*　　*

첫 조를 거두던 날, 사람들이 강가에 모였다.

"해님, 강님, 올해도 고맙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 비가 와야 하고 해가 나야 한다. 사람 힘으로 안 되니 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에도 강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겼다.

옆 마을은 곰을 조상으로 모셔서 곰을 안 잡는다고 했다. 특정한 동물을 우리 편 조상으로 받드는 **토테미즘**이다. 조개 가면을 쓴 무당이 춤을 췄다. 하늘과 사람을 잇는 무당을 믿는 **샤머니즘**.

'곰을 모시는 마을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얘긴데.'

이 마을은 모두 한 핏줄, **씨족**이었다. 짝은 다른 씨족에서 찾았다. 그렇게 씨족과 씨족이 이어져 더 큰 **부족**이 됐다. 거둔 건 여전히 똑같이 나눴다.

"할머니가 제일 어른인데 더 가져가셔야죠."

"더 가져가서 뭐 하게. 썩기밖에 더 하냐."

할머니가 깔깔 웃었다. 큰손 아저씨와 똑같은 얼굴로. 남기는 하는데, 아직 누가 독차지할 만큼은 아닌 거다.

[임무 달성. 다음 시대로 건너뜁니다.]

이번엔 인사를 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다 말고 물었다.

"어디 가냐? 거긴 살기 좋으냐?"

대답하려는데 창이 한 줄 더 떴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알려 드립니다. '평등'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이 번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무릎이 꿇려 있었다. 목에 햇빛을 받아 누렇게 번쩍이는 금속이 닿았다. 돌이 아니었다. 청동 칼이었다.

칼을 쥔 사내가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한결의 쪽지

- 구석기: 뗀석기(주먹도끼·찍개·슴베찌르개) / 사냥·채집 → 먹을 게 떨어지면 옮김 → 이동 생활 → 동굴·바위 그늘·막집 / 마찰식 점화법
- 남는 게 없음 → 무리 생활, 평등 /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모비우스의 '동아시아엔 찍개뿐' 학설을 뒤집음 / 단양 수양개(여러 기법)
- 따뜻해짐 → 신석기: 간석기(갈돌·갈판) / 조·피, 농경과 목축 → 정착 → 움집(가운데 화덕) / 빗살무늬·덧무늬·눌러찍은 무늬 토기
-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조개더미), 양양 오산리(이음낚시·그물추), 여수 안도(조개팔찌, 매장) / 가락바퀴·뼈바늘
- 애니미즘·토테미즘·샤머니즘 / 씨족 → 부족, 아직 평등 → 다음은 청동기